

하와이 대학교 도서관 한국 전쟁 아카이브 구축과 로컬리티 기록화

Korean War Archiving Project And Documenting Localities in University of Hawai'i at Mānoa Library

김엘리(Elle Kim)¹, 박예진(Yeajin Park)², 최보영(Boyoung Choi)³

E-mail: eunahkim@hawaii.edu, yeajinp@hawaii.edu, boyoung7@hawaii.edu



1 제1저자 하와이 대학교 도서관 한국학 주제 전문 사서
2 교신저자 하와이 대학교 도서관 방문 사서 (전 한국국제교류재단 글로벌챌린저 프로그램 인턴 사서)
3 공동저자 한국국제교류재단 글로벌챌린저 프로그램 하와이 대학교 도서관 인턴 사서

논문접수 2024.7.16
최초심사 2024.7.22
게재확정 2024.8.22

ORCID

Elle Kim
https://orcid.org/0009-0003-6794-7717

Yeajin Park
https://orcid.org/0009-0003-9838-8006

Boyoung Choi
https://orcid.org/0009-0009-3944-9896

초 록

이 논문은 로컬리티 기록의 관점에서 해외 한국학 관련 기관의 아카이브 구축 사례를 살펴보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해외의 한국학 관련 기관과 해당 지역의 한국 관련 공동체의 연대가 아카이브의 확장 및 로컬리티 기록화의 실천에 미치는 영향을 하와이대학교 도서관의 한국 전쟁 아카이브 컬렉션 구축 사례를 통해 살펴본다. 이를 위해 로컬리티와 로컬리티 기록화의 함의를 재검토하고, 한국과 하와이의 두 지리적 영역이 융합된 로컬리티의 경우와 같은 해외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한국학 로컬리티 기록화의 방법을 논의하고자 한다. 2023년부터 하와이 대학교 도서관은 한국전쟁참전용사협회 하와이 제1지부(Korean War Veterans Association Hawaii chapter 1, 이하 KWVA)와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한국전쟁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고 아카이빙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기록관리주체-기록생산주체가 관계를 발전시키며 해외의 한국학 관련 로컬리티 기록을 실천한 사례이다. 기록물의 수집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해외 소재 한국학 관련 기관에서 아카이브를 확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로컬리티 기록화를 제시하고, 이를 위해 한국 관련 지역 공동체와의 연대의 중요성을 논한다. 마지막으로 이를 실천하기 위한 기록관리 주체의 역할과 사례를 통해 발견한 시사점을 공유한다.

ABSTRACT

This article examines the cases of archive development by research institutions for overseas Korean studies from the perspective of documenting the locality and explores development plans. The study investigates the impact of the solidarity between overseas Korean studies institutions and Korea-related communities in the region on the expansion of archives and the practice of locality documentation, using the case of the Korean War Archive Collection at the University of Hawai'i at Mānoa Library. For this, it reexamines the implications of locality and locality documentation. In addition, it discusses the methods of Korean studies locality documentation emerging abroad, such as the locality where the two geographical areas of Korea and Hawaii are fused. Since 2023, the University of Hawai'i at Mānoa Library has been forming a network with the Korean War Veterans Association Hawaii Chapter 1 (KWVA) to collect and archive materials related to the Korean War. This is a case wher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rchivists and the donor community has been developed to practice documenting the locality regarding Korean studies abroad. It proposes locality documentation as a way to expand archives in overseas Korean studies institutions that inevitably rely on the collection of records and discusses the importance of solidarity with Korea-related local communities. Finally, it shares the role of the record management subject and the implications found through the case.

Keywords: 해외 한국학, 로컬리티, 로컬리티 기록화, 한국전쟁, 공동체 아카이빙

Overseas Korean Studies, Locality, Locality Documentation, Korean War, Community Archiving

© 한국기록관리학회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해외에서는 근래 한국학의 규모가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외에 소재한 한국학 관련 기관, 특히 한국학 관련 도서관 및 아카이브는 한국학 연구를 뒷받침하기 위한 다양한 질적, 양적 성장을 도모하여 왔다. 소재지의 특성 상, 하와이 대학교 도서관과 같은 연구전문도서관(Research Library)을 비롯한 해외의 한국학 관련 기관들은 그 역할이 국내 기관들과 구별되곤 한다. 위와 같은 기관들은 자기관에 소속된 한국학 연구자들의 관심 분야에 따라 자료를 수사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기적으로 지원해주는 자료를 기증받는 것 외에도, 기관별 컬렉션의 강점과 특징점을 개발하는 것이 관건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한국학 주제전문사서의 능동적인 컬렉션 관리 및 지역 내 한국 관련 공동체와의 연대 또한 필요하다. 하와이대학교 도서관은 특수한 지역 사회를 반영한 한국학 관련 자료의 수집 및 관리 방법을 모색하였고, 이에 로컬리티 기록화를 방법론으로 선택하여 한국전쟁 아카이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2장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로컬리티 기록화의 개념과 그 함의에 대해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해외 소재 한국학 컬렉션과 아카이브로서의 하와이 대학교의 기능을 검토한 다음, 하와이와 한국학, 특별히 한국 전쟁과의 연계성에서 비롯한 로컬리티 기록화에 대해 고찰한다. 4장에서는 실제로 수행한 로컬리티 기록화 프로젝트, 한국전쟁 아카이브 컬렉션의 구축 사례를 통해 수집한 기록물과 아카이빙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2. 로컬리티 기록화의 함의

기록학 영역에서 로컬리티의 개념은 Richard Cox에 의해 기록화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론으로 제시되며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Cox(1996)는 로컬, 즉 지역 기반의 실천으로 도큐멘테이션 전략¹⁾의 중요성을 뒷받침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지역의 집단과 장소에 의한 고유한 사회적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아키비스트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국내 기록학 영역에서는 2010년대부터 로컬리티와 로컬리티 기록화를 다양한 각도에서 재조명하고 논의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디지털 환경 기반, 기록물관리기관 중심과 탈중심, 주민 참여와 마을 아카이빙, 공공역사와 같이 관련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실제 기록을 가지고 특정 지역의 장소와 공동체 등 고유의 정체성을 재현하는 다양한 사례 연구도 소개된 바 있다.

로컬리티에 대해 지역이 지닌 가치와 속성이라는 일차적인 정의를 넘어 그 함의를 탐구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문재원(2016)은 로컬리티를 “삶의 터전으로서의 로컬(공간)과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역사적 경험(시간)을 통해 만들어가는 다양한 관계성의 총체”로 설명하며, 이는 “매우 유동적이고 중층적이며, 권력적이고 가치지향적”이라고 논했다. 설문원(2012)은 “로컬리티 기록화는 지역에 토대를 둔 행위 주체들의 다양한 활동과 이에 따른 지역의 변화를 보여주는 기록을 수집·생산하는 작업”이며, 로컬리티는 “지역 정체성”의 동의어이며, 정체성이란 “지역에 기반을 둔 다양한 집단과 개인들이 주체적으로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라 하였다. 한편 김선미, 송정숙(2020)은 조선시대 기록물로 울산의 로컬리티를 재현하는 연구를 수행하면서, 로컬리티 기록화의 요소로 공간, 사건, 인물, 인식, 가치를 설정하였다.

이처럼 로컬리티란 특정한 제도의 한계 속에서 그것을 측정하고 추인하는 특정 시점이나 특정 위치에 자리한 주체의 취향과 판단에 의존하는 가변적인 개념이다. 이러한 로컬리티 관한 함의 탐구는 로컬리티 기록화에 참여하

1) 특정한 지역, 주제, 사건 등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기록 생산자, 보존 기록관, 기록 이용자의 상호 협력을 통해 선별하여 수집하는 평가·선별 방법론. 한국기록학회. (2008). 기록학용어사전. 85-86.

는 주체들의 개성과 특성을 반영하며 로컬리티를 기록하는 주체들에게 접근의 유연성을 부여한다. 다시 말해, 로컬리티 기록화라는 개념의 해석과 실제 기록을 수집, 관리, 활용하고자 하는 아카이빙의 전략 및 실천은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로컬리티 기록화가 엄밀한 개념적 정의를 기반으로 한 아카이빙 방법론 보다 포괄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여, 퍼블릭 히스토리 아카이브, 공동체 아카이브와 같은 관련 개념들과 함께 쓰일 수 있게 한다. 또한, 아키비스트들로 하여금 다른 지역, 사회, 개인과 구별되는 고유하고 특수한 정체성을 고려하여 그 전략 수립과 실천의 자율성을 고려할 수 있게 한다. 이에 로컬리티 기록의 대상은 특정 지리적 영역에서 발생한 특정 역사적 사건, 특정한 장소성을 공유하는 개인들이 모인 집합체의 활동 등이 될 수 있다.

3. 하와이의 로컬리티와 하와이 대학교 도서관에 의한 기록화

3.1 해외 소재 한국학 컬렉션의 특수성

하와이 대학교 도서관은 기본적으로 대학 내의 연구와 교육을 뒷받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전미도서관협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이 정의한 Academic Library Selection Policy Objectives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이에 따르면 ‘대학 도서관 구매 정책의 주요 목적은 대학 커뮤니티에 대학의 목표, 커리큘럼과 연구자들의 요구, 학문의 자유 원칙에 부합하는 광범위한 학술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구매 정책에는 대학 커뮤니티의 모든 구성원이 협력하고 의견을 제시할 방법이 포함되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대학 도서관의 서비스 대상은 대학 구성원들이며 그 구성원들이 수요가 구입 및 인수에 반영되어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²⁾.

위를 고려해 보았을 때 한국 전쟁 연구자가 없는 하와이 대학에서 한국 전쟁 아카이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은 대학 도서관의 본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하지만 위 정의는 대학 도서관이 해당 대학의 목표에 부합하는 컬렉션을 구성해야 한다고 언급한다³⁾. 하와이 대학은 스스로를 ‘community-serving university’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하와이 대학 도서관 또한 그 목표로 ‘교육, 연구 및 지역 사회 참여를 촉진하는데 필수적인 기관’이 되는 것이라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하와이 대학과 그 도서관의 목적을 고려하였을 때, 한국 전쟁과 깊은 관련이 있는 하와이의 가장 큰 교육 기관이며 주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주립 대학인 본교가 지역 커뮤니티와 깊은 연대를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⁴⁾

대학 도서관 내에서도 area collection이라 불리는 특정 지역의 전문 컬렉션은 일반 컬렉션과는 달리 지역 사회에 깊은 유대 관계를 쌓는 경우가 많다. 이는 지역 사회의 구성원들이 소장하고 있던 자료들의 기부처가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대학 도서관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 전문 컬렉션은 대학 구성원들 뿐 아니라 지역 사회 구성원들과 그들의 관심사를 반영하고 있다고도 할 수가 있다. 해외 도서관의 한국학 컬렉션, 한국 관련 아카이브 경우 그 수가 많지 않다. 많은 기관이 한국 관련 기초적인 참고 도서들을 소장하고는 있지만 한국에 관한 자료를 별도로 적극적으로 수집하거나 한국 자료를 담당하는 전문가를 보유하는 경우는 매우 적다. 북미-미국과 캐나다-에 걸쳐 상근으로 한국학 컬렉션만을 담당하는 사서의 수가 열네 명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런 상황을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다⁵⁾. 이러한 제약 속에서 한국학 컬렉션과 담당 사서를 가진 도서관들은 비록 대학 도서관이라도 해당 지역의 지역 교민 사회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2)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Selection & reconsideration policy toolkit for public, school, & academic libraries. ALA.

3) University of Hawai'i at Mānoa (2024). Strategic plan.

4)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Libraries transforming communities: Engagement. ALA.

5) 한국국제교류재단. KCCNA(북미 한국학 컬렉션 컨소시엄, Korean Collections Consortium of North America).

3.2 하와이-한국의 로컬리티 특수성: 하와이 대학교 한국학 컬렉션의 역사와 하와이와 한국 전쟁과의 관계

하와이와 한국은 아주 특수한 관계를 맺고 있다. 6)1902년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기 위해 하와이에 온 노동자들은 한국의 첫 이민자들로 기록되고 있다. 이러한 긴 이민 역사를 바탕으로 하와이에는 큰 규모의 한인 사회가 만들어졌고, 첫 이민으로부터 120년여년이 지난 지금도 하와이의 한인 수는 전체 하와이 인구의 3.6%로 전체 인구 구성으로 볼 때 6번째로 큰 집단이다. 미국 전체 인구의 0.6%가 한인인 것과 비교해보면 하와이가 높은 한인 인구 밀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한인 사회와 미국 본토와 한국 사이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하와이 대학은 한국학에 있어서 오래된 역사가 있다. 현재에도 40명 이상의 교수진이 한국학 관련 연구를 하며 다양한 한국학 강의를 개설하고 있고, 이러한 강의에 등록한 학부생 수는 2023년 가을 학기 기준으로 400명 이상에 달한다 7). 이러한 한국학 프로그램을 뒷받침하는 하와이 대학 도서관의 한국학 컬렉션 또한 오랜 역사와 양질의 자료들을 갖추고 있고, 한국 컬렉션 전담 사서를 고용하고 있다.

하와이에는 다수의 한국 전쟁 참전자들이 거주하고 있다. 세계 제2차 대전 당시, 미국의 적국이었던 일본으로부터 이주해왔던 일본계 미국인들은 극심한 차별에 시달리게 되었고 때로는 수용소에 보내지기도 하였다. 당시 하와이 거주민의 3분의 1 이상이 일본계로, 하와이는 미국의 어느 지역보다 높은 일본계 인구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들은 세계 2차 대전으로 인해 자신들에게 드리워진 차별과 선입견을 극복하는 방편으로 군대에 자원하여 자신들의 미국에 대한 애국심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이들 중 다수는 세계 2차 대전 이후, 일본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었던 이 하와이의 일본계 미군들이 전투에 투입되게 된다. 이들은 한국 전쟁의 첫 전투에 보내진 이들이었으며 한국 전쟁 내내 많은 수의 하와이 주민들이 한국 땅에서 싸우고 전사하거나, 이후 하와이로 귀환하였다.

이처럼 하와이 대학 도서관의 한국학 컬렉션 및 관리 주체인 한국학 사서들은 하와이에 거주하는 다수의 한국 전쟁 참전 공동체와 ‘하와이-한국’을 잇는 복합적인 로컬리티를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로컬리티의 특수성이 이 한국 전쟁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가능하게 하였다.

3.3 로컬리티의 기록화를 위한 하와이 대학교 도서관 한국학 컬렉션의 역할

한국 전쟁 아카이브의 시작은 하와이 지역 참전자들의 자료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다. 본 컬렉션은 2023년에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터키군 장교의 개인 소장 자료들을 입수한 것을 계기로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이를 하와이 영사관 무관으로 재직 중인 오순근 대령의 도서관 방문 시 선보이게 되었고 이후 하와이 지역 한국 전쟁 참전자들을 관리하고 후원하는 무관부의 협력을 얻어 2023년 11월, 한국 전쟁 참전자들을 도서관으로 초대하여 기존의 터키군 자료를 소개하는 동시에 참전자들의 한국 전쟁 소장 자료를 기부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 행사는 많은 호응을 얻어 참전자들의 자료 기부가 이어졌고 이 자료들을 어떻게 다루고 이용하고 있는가를 소개하기 위해 2024년 4월 두 번째 초대 행사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한국학 컬렉션과 그 관리 주체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젝트에 관여하는 당사자나, 단체와의 관계 형성과 유지이다. 하와이 지역에서 한국 전쟁 참전자들의 모임은 한국 영사관의 무관부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무관부의 협력이 프로젝트에 중요한 요소이다. 하와이 참전자들은 Korean War Veterans Association Hawaii chapter 1(한국전쟁참전용사협회 하와이 제1지부,

6) Korean American Historical Society. (2003). 1903 - 2003: A century of Korean immigration.

7) Center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2023). CKS Faculty.

이하 KWVA)이라는 조직에 속해 있는데, 이 조직의 운영진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특히, 참전자들은 고령이라는 특성 상, 이메일 등을 통해 연락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이미 사망한 경우도 많아 그 유족과 연락해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도서관측의 실무자와 당사자들의 소통을 돕고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역할을 무관부와 KWVA 운영진이 맡아주고 있다. 이러한 매개 역할을 하는 개인과 단체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도서관으로서의 필수적이다.

둘째, 참전자들과의 개인적인 유대 관계 형성이다. 이들이 사선을 넘어 싸운 전쟁에서 가지고 돌아온 자료들에 개인적으로 깊은 애착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유족들이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경우 그 자료들을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유물로 자신의 아버지 에 대한 추억이 자료에 애착을 더하게 된다. 도서관에 이를 수집하기 까지는 하와이 도서관과 담당자가 기증자들과 개인적인 관계를 형성해서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하와이 대학 도서관 한국학 담당자와 실무자들이 KWVA의 모임들에 참여하였고, 기증자들과 개인적인 모임을 가지기도 하였고, 앞서 말한 두 번의 초대 행사를 하기도 하였다.

셋째, 앞서 말했듯 기증자들은 본인들이 소장한 자료에 개인적인 애착이 크다. 이러한 자료들을 기부하기를 권하는 경우, 도서관과 담당자가 깊은 존경으로 자료를 세심하게 다루고, 이 자료들이 안전한 곳에서 보관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초대 행사에서 도서관 측은 자료의 분류, 보존, 디지털화 등 아카이빙 계획을 상세히 소개하였고, 그 결과물로 전시와 디지털 아카이브를 선보였다.

넷째, 아카이브의 교육적 활용이다. 하와이 참전자들이 이 프로젝트에 큰 호응을 보내주었던 이유는 한국 전쟁이 미국 내에서는 ‘잊혀진 전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하와이 대학 도서관은 그들의 유산에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이다. 본 도서관은 참전자들에게 우리가 이 자료들을 미래 세대의 교육을 위해 쓸 것이라는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2024년 6월에서 7월 도서관 내에서 한국 전쟁에 대한 전시를 열었고, 앞으로도 대학 내 수업의 연계, 온라인 전시 등을 통해 하와이, 또는 다른 지역에 한국 전쟁에 대한 교육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본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통해 하와이 대학 도서관은 하와이의 지역과 한국전쟁이라는 공유된 역사적 경험이 교차하여 형성된 특수한 로컬리티를 바탕으로 기록화를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림 1> 기증자료 특별 전시

4. 하와이 대학교 도서관 한국전쟁 아카이브 컬렉션 구축 과정

제3장 3절에서 언급하였듯, 하와이 대학교 도서관은 KWVA 협회원 도서관 초청 행사를 2023년 12월 2일, 2024년 4월 22일 2회 주최하였다. 이외에도 주 호놀룰루 한국 영사관 무관부의 지원으로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KWVA 참전용사 및 협회원들과의 조찬 모임에 참석하는 등 꾸준히 라포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우리는 개방적인 수집을 지향하여, 사전 리드파일 작성을 포함한 별도의 수집정책을 수립하지 않았다. 이것은 참전자들 개개인에 대한 정보 및 소장 기록물들에 대한 정보가 매우 미비한채로 KWVA 협회와 연결된 초기 상황에서, 하와이 대학교와 KWVA가 공유하는 하와이-한국의 복합된 로컬리티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함이었다. 즉 본 아카이빙 프로젝트는 비단 한국 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의 보편성에 국한되기보다, 하와이에서 한국 전쟁에 참전한 사람들의 이야기, 다시 말해 그들의 고유한 정체성이 반영된 기록물들을 발굴하고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또한, 초고령의 참전자 및 협회원들의 연령을 고려하여 보다 쉬운 참여와 편의, 그리고 예우를 위해 수집 조건을 최소화하기로 하였고, 그들이 기증하고자 하는 소장기록물이라면 적극적으로 수집하였다. 그 결과, 열다섯 명의 기증자로부터 165건의 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었다. 한편 이 수치는 2024년 4월 17일 기준 인수(accessioning)한 기록물을 계수한 값으로, 2024년 4월 22일 도서관 2차 초청행사와 이후 비공식적인 방문 요청 등을 통해 더 많은 참전자 및 협회원들로부터 기록물을 기증받아 처리하고 있어 컬렉션의 실제 규모는 위 수치를 능가한다.

개방적으로 기록물의 수집이 이뤄졌던만큼, 기록물들의 유형은 군사 매뉴얼이나 지도와 같은 문서에서부터 카메라 지계와 같은 박물류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였다. 또한 협회 활동 사진과 같은 기록물들은 여러 기증자로부터 복본이 존재하기도 하였다. KWVA 외부 도서관 이용자 관점에서 기록물의 서비스를 용이하게 함은 물론, 추후 컬렉션의 확장을 고려하였을 때, 본 컬렉션의 분류 기준은 주제가 되었다. 그렇게 수집된 기록물은 기증자와 기록물의 유형에 상관 없이 한국 전쟁, KWVA 협회, 개인기록물의 세 가지 주제로 분류되어 ‘Series 1: Korean War’, ‘Series 2: KWVA’, ‘Series 3: Personal’ 세 개의 최상위 계층 시리즈가 형성되었다.

‘Series 1: Korean War’ 시리즈에는 한국 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직결된 기록을 분류한 것으로, 전시에 작성한 참전 일지, 사용한 군용 장비, 촬영된 사진과 필름, 군사 매뉴얼 등이 포함된다. 이 컬렉션의 주요 기록물은 한국전 중군기자였던 故 Edward Matayoshi의 사진첩으로 동료 참전 용사 Herbert K. Kobayashi가 기증한 것으로 전시 한국의 모습을 생생하게 촬영한 135장의 원본 사진(original print)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전쟁 당시 군의 활동사진, 지리, 경관, 의식 전단지 등 당대를 재현하고 있는 이 기록건은 격납, 보존처리, 디지털화를 거쳐 보존상자에 넣어 배가하였고, 현재는 하와이 대학교 도서관의 디지털 이미지 컬렉션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열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⁸⁾.

8) University of Hawai'i at Mānoa (2024). Digital Library: Korean War Collection: Korean War Veterans Association Collection. <https://digital.library.manoa.hawaii.edu/collections/show/78>



<그림 2> Edward (Ed) Matayoshi Photo album 일부

12/21/2023

To whom it may concern:-
 These photos were given to me
 Herb Kobayashi by Edward (Ed)
 Matayoshi. I am passing it on
 to the Hamilton Library, UHM.
 Ed is someone I have known since
 1943 and we enlisted together
 in 1949 after High School.
 He was a combat photographer
 with the 2nd Signal Co., 2nd Inf.
 Division and I was a Morse Code
 Radio Operator with the 25th Signal
 Co., 25th Inf. Division.
 Photo this photo on the left page
 of the album. I echo what he
 said about being accepted by
 others when he was the only
 AFA among Caucasians (The
 Bo) Enjoy: Herb Kobayashi
 Note: Ed died 3/14/2012, interred at Haganah Temple, Hawaii

<그림 3> Edward Matayoshi Photo album의 기증자 Kobayashi의 기증 노트

<표 1> Series 1: Korean War 시리즈 주요 기록건목록

건제목	유형	기증자	생산자	생산년도	주기
Up and Down in and around North and South Korea	문서류	Kenneth Aijiro Tashiro	Kenneth Aijiro Tashiro	1950-1951	한국전쟁 참전일지
Writing Our Lives	문서류	Herert Kobayashi	Herert Kobayashi	2018	한국전쟁 참전회고록
A Doctors account of the Korean War from the vantage point of service as the 1st battalion surgeon and as the regimental surgeon of the 7th infantry regiment of the 3rd infantry division.	문서류	Walter M. Ozawa	General Fred C. Weyand	1950-1951	한국전쟁 참전일지
Edward (Ed) Matayoshi Photo album	사진.필름	Herert Kobayashi	Edward Matayoshi	1950	전시(戰時)사진원본 프린트
Photographs in Korea War	사진.필름	Kenneth Aijiro Tashiro	Kenneth Aijiro Tashiro	1951	전시(戰時)사진원본 프린트
Photographs in Korea War	사진.필름	Gary Fukumitsu & Frances Fukumitsu	Gary Fukumitsu	미상	전시(戰時)사진원본 프린트
FM 22-5 Department of the Army field Manual Drill and Ceremonies	문서류	Lucio Sada Sanico	United States Department of the Army	1953	한국전쟁 미육군사매뉴얼
Field Telephone	박물류	Walter M. Ozawa	-	미상	한국전쟁에서 사용된 야전 전화기
Box Camera	박물류	Walter M. Ozawa	-	미상	한국전쟁에서 사용된 카메라

‘Series 2: KWVA’ 시리즈는 KWVA 협회 활동 기록물로, 로컬 커뮤니티로서 KWVA의 활동 맥락을 보존하기 위한 시리즈이다. 국가보훈부의 한국전쟁 참전용사 한국 재방문 프로그램(Korea Revisit Program)에 참여한 협회 회원들이 인천상륙작전기념관, 판문각, 판문점, 6·25 격전 함안 민안비, 김포국제공항 폭발 사고 희생자 추모비, 남산, 사관학교 등을 방문하여 촬영한 사진들을 포함하여, 협회의 단체 활동이 보도된 언론 기사 스크랩, 유관 행사 팸플릿 수집한 앨범, 협회 단체티셔츠, 기타 정기모임이나 특별 행사에서 생산된 기록물이 포함된다. 이 시리즈에 속한 기록물들은 KWVA 협회라는 조직의 활동을 맥락을 보존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참전 용사들이 시간이 많이 지난 후 과거의 경험과 기억을 공유하는 방식을 재현하고 하와이라는 특정 지역사회 안에서 연대함으로써 로컬리티가 잘 드러난다는 의의가 있다.

‘Series 2: KWVA’ 시리즈는 기록관리주체인 하와이 대학 도서관이 아카이빙의 대상이 되는 KWVA를 이해하는 데에도 역할을 하였다. KWVA에서는 2013년 Korean War Veterans in Action이라는 책자를 발간한 바 있다. 이는 협회원들에게 제한적으로 배포되었으며 협회와 협회원들의 역사, 소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책자를 기증받음에 따라 본 도서관과 프로젝트 참여자들이 한국전쟁 참전용사 협회의 역사와 그 각각의 구성원들의 이력 및 그들의 참전 경험을 이해할 수 있었다. 또한, Frances Fukumitsu가 참전 용사였던 배우자 故 Gary Fukumitsu와 공동 명의로 기증한 기록건, ‘Brief History of the Korean War Veterans Association Hawaii Chapter #1’는 KWVA 협회의 역사를 다룬 책자이다. 아래는 해당 기록건의 본문 중 일부를 번역한 것으로, 기록관리주체인 하와이 대학 도서관으로 하여금 KWVA 시리즈에 포함된 하와이 기록물들의 맥락을 파악하게 하는데 가이드 역할을 하였다.

1989년 하와이의 한국전쟁 참전자들은 한국 재방문 프로그램이라는 프로그램에 따라 한국으로의 초대장을 두 번 받았다. 첫 번째 초대장은 4월, 두 번째 초대장은 10월이었다. 10월에 한국을 방문한 그룹이 귀국후 협회가 비공식적으로 조직화되었고 1990년부터 1994년까지 4년에 걸쳐 4차례의 모임을 가졌다. 이때 초대 회장은 Louis Baldovi였고, 두 번째 회장은 Robert Hamakawa였다. 또다른 하와이의 참전용사그룹으로 Baldovi는 1991년에 하와이에서 45th Infantry Division Association, Hawaii라는 이름으로 최초의 한국전쟁 참전용사 그룹을 조직했고, 초대 회장으로 활동하였다. 1993년에 Louis Baldovi는 공식적으로 하와이에서 최초의 한국전쟁 참전용사 그룹인 Korean War Veterans Association, Hawaii Chapter #1을 조직했다. 1993년 8월에 KWVA National에서 조직을 창립하고 초대 회장인 Yuji Katano를 선출하였다. 그러나 처음 조직의 목적은 활동이 목적이 아니었다. 1995년 7월에 National Korean War Memorial 헌정을 위해 워싱턴 D.C.로 여행을 계획한 것에 대한 지원을 받기위한 조직화였다.

1996년 KWVA HI Ch. #1과 45th ID Association, Hawaii의 회원들은 더 이상 활동을 하지 않아 해체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에 Louis Baldovi는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한국에서 복무한 모든 한국 전쟁 참전 용사에게 회원 자격을 개방하고 협회를 재조직하였다. 그는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첫 번째 회장으로 재임하였고 26명의 회원과 함께 China House Restaurant에서 첫 회의를 진행하였다. 두 번째 회장으로 Robert Hamakawa가 1999년부터 2003년까지 5년간 재임하였고 이후 Jack Hirai가 2004년 회장으로 선출되어 활동하였다. KWVA H Ch. #1은 하와이에서 한국 전쟁 참전 용사 협회의 초석이 되었고 이후 모든 주요 섬에 KWVA 지부가 형성되었다. 1997년부터 Louis Baldovi와 Robert Hamakawa의 도움으로 KWVA National은 KWVA Kauai, KWVA Aloha 지부, KWVA Hilo 지부, KWVA Kona 지부, KWVA Maui No Ka Oe 지부의 형성을 도왔다. KWVA HI CH. #1은 한국 전쟁 관련 모든 행사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였으며 하와이주에서 제향군인 단체로 한국 사회에서 인정을 받았다.

이외에도 협회원들은 자체적으로 출판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하였는데, KWVA 협회장으로 재임했던 Louis Baldovi는 2002년 자신과 하와이 출신 군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A Foxhole View: Personal Accounts of Hawaii's Korean War Veterans 라는 책을 출간하였다. 또한 그들은 한국 전쟁에 참전한 일본계 미국인을 조명하는 단행본 또한 출판하였는데, 이는 앞 장에서도 언급하였듯 일본계 미국인의 참전이 가지는 의의가 깊은 하와이의 역사적 맥락이 잘 드러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 Series 2: KWVA 시리즈 주요 기록건목록

건제목	유형	기증자	생산자	생산년도	주기
Revisit Korea Program Photographs	사진.필름	Gary Fukumitsu, Frances Fukumitsu, & Tommy Tahara	Gary Fukumitsu, & Tommy Tahara	2005-2022	국가보훈부 한국전쟁 참전용사 한국 재방문 프로그램 활동사진.
Brief History of the Korean War Veterans Association Hawaii Chapter #1	문서류	Gary Fukumitsu, & Frances Fukumitsu	KWVA	미상	KWVA 협회 연혁사
Messages for the Commemorations of the beginning of the Korean War	전단류	Clifford Chillingworth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Hawaii Chapter	2020-202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하와이 지부 69주년, 70주년 감사 팸플릿

‘Series 3: Personal’은 개인 기록물들을 분류한 기록군이다. 참전자 개개인의 업적 및 생애사를 다루는 기록물들이 포함되어 있다. 훈장(Orders of Merit)과 포장(Medals of Honor), 이를 담은 상훈 상자(Military Keepsake Box), 개인 감사패, 가족사진, 군인 신분증 등이 이 시리즈에 포함된다. 이 시리즈에 속한 기록들은 한국전쟁이 그 역사적 사건에 참여한 사람들 개개인에게 미친 영향과 정체성을 재현한다. 훈장 및 포장을 기증한 기증자에겐 참전에 대한 공로를 치하받는 것이 큰 의미가 있었을 것이고, 가족사진 앨범을 기증한 기증자에겐 휴전 후 가정으로 복귀하여 일상을 영위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었을 것이다. 이처럼 ‘Series 3: Personal’ 시리즈는 개인사적 맥락을 보존하기 위해 조직되었다.

이 컬렉션의 지적 통제를 위해서는 하와이대학교 도서관의 Archive Management System (AMS)인 ArchivesSpace와, 디지털 리포지토리이자 이용자서비스 플랫폼인 eVols가 사용되었다. 지적통제의 최초 단계는 AMS에 기록물의 인수 기록을 생성하여 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이다. ArchivesSpace에 인수 기록을 기증자별로 등록한다. 그다음, 기록물들을 평가하며 획득한 로컬리티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 컬렉션은 앞서 설명한 ‘Series 1: Korean War’, ‘Series 2: KWVA’, ‘Series 3: Personal’ 세 가지의 최상위 계층으로 재분류된 것이다. 추후 기증받는 기록물들 역시 최초 조직화된 위 분류체계에 따라 분류될 것이며, 검색도구(finding aid) 또한 생성될 예정이다. 한편, 디지털화 및 온라인 서비스 또한 진행 중이며, Series 1: Korean War에 속한 기록물들 우선으로 이뤄지고 있다. 디지털화된 기록들은 하와이 대학교 도서관의 공개 리포지토리와 디지털 컬렉션 플랫폼인 University of Hawai'i eVols, University of Hawai'i Digital Library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5. 시사점 및 한계

본 로컬리티 기록화 프로젝트에서는 아키비스트가 엄격한 수집 정책을 수반하여 진행하기보다, 로컬 커뮤니티가 아카이빙하고자 하는 기록물을 직접 선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개방적인 수집 방법은 그들이 보존하고자 하는 로컬리티를 그대로 재현하게 하였다.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적 사건, 그 사건의 중심에서 개인이 겪은 경험과 함께 공유되는 기억, 참전 이후 퇴역 군인들로서 하와이에서 수십 년간 이어온 협회 활동, 개개인의 생애사가 이 아카이브가 보존하는 로컬리티이다. 그러나 아카이빙의 대상이 기증자 의존적으로 선별되었던 만큼, 기관에서 예상하기 어렵거나 관리하기 어려운 기록물마저 여과 없이 수집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개인식별번호인 SSN(Social Security Number)이 포함된 문서를 기증받기도 하였다. 교육기관 데이터 분류 범주 및 정보 보안 가이드라인에 대한 하와이 대학교 행정 정책(UH Executive Policy for Institutional Data Classification Categories and Information Security Guidelines)에 따라, 이러한 개인정보는 하와이 주에서 통지 요건 혹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매우 민감한 데이터로 구분된다. 이러한 철저한 규제 정책에 따라 해당 건은 디지털화에서 제외되었으나, 실물 열람에 있어서도 비공개 기록물로 구분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아카이빙의 목적에 온전히 부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기록물들을 수집하게 되는 한계가 있다. 약 70년 된 나무지계를 기증받았는데, 이는 독특한 유물이기는 하나, 우리가 기록화하는 로컬리티와는 다소 동떨어진 유물이었다. 이처럼 이미 기증받은 기록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증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을 발견하거나 아카이브의 목적에 온전히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기록물이 있을 경우, 이를 반환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이처럼 개방적으로 기록물을 기증받은 결과 때문에 후속 조치에 대한 대응이 부가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한계를 낳는다.

또한, 기록물들이 주제별로 분류되었는데, 이는 곧 기록물을 평가하였던 기록관리주체인 사서의 주관이 적극적으로 개입되었음을 뜻하기도 한다. 가령 제1시리즈 Series 1: Korean War와 제3시리즈 Series 3: Personal의

구분이 명확하게 되지 않는 기록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한국전쟁 참전에 대한 참전용사들의 회고록이 그러하다. 이 기록물의 내용은 한국전쟁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서 2020년에 작성한 것이고 동시에 개인의 사적인 경험과 감정이 담겨 있어 두 시리즈 중 어느 시리즈에 포함해야 할지 명확하지 않았다. 이런 분류의 모호성은 기록물 분류 및 평가의 일관성을 저해하여 추후 이용자들에게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록물들의 보관권(Custody)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는 문건을 사전에 만들지 못했다. 예를 들어, 후손들이 기록물을 돌려달라고 요청할 경우 이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정립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는 기록물의 법적 소유권과 관련된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며, 아카이브의 신뢰성과 지속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기록물의 기증 및 보관에 대한 명확한 법적 문서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기증자와 후손들의 이해와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실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아카이빙 프로젝트는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로컬 커뮤니티의 직접적인 기여를 바탕으로 아카이브가 구축되었다. 하와이 대학교 도서관의 한국학 사서들과 하와이에 거주하는 한국 전쟁 참전 공동체가 협력하여 ‘하와이-한국’의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로컬리티를 발견하고 보존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아카이브는 단순한 기록물의 집합을 넘어서, 지역 커뮤니티와 기록관리 주체, 그리고 이용자 간의 상호작용과 역사적 기억의 공유를 더욱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6. 결론

이 아카이브 프로젝트를 통해 본 기관은 하와이라는 지역적 특수성과 그로 인해 파생된 한국 전쟁 참전이라는 역사적 경험을 기록하고자 하였다. 프로젝트의 진행을 되돌아보면 프로젝트 자체가 참전자들의 고령의 나이 때문에 급히 진행되어 치밀한 사전 계획을 바탕으로 하지 못하여 기록물의 수집에 있어 구체적인 절차와 전략 수립이 다소 미흡했다. 예를 들어 수집 희망 기록물에 대한 안내는 기증자들의 나이를 고려하여 ‘한국 전쟁 관련 자료’와 같이 매우 포괄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이후 광범위하지만 질적 차이가 큰 기증품들을 수집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본 기관에 있어 기증품의 선별 및 처리에 있어 과중한 업무를 가져왔으나 기증자들과의 라포 형성과 그에 따른 이후 수집에는 도움이 되는 양면성을 가져왔다. 이에 2차 수집에서는 1차보다 양질의 기록물 수집이 이뤄질 수 있었다.

이 프로젝트는 개인 차원에서 소실될 수 있는 기록물을 해외 한국학 관련 기관이 위탁 혹은 기증받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더 나아가 지역 공동체와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단순히 기관에 기록물의 보관권을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와의 연대와 로컬리티 기록화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해외 한국학 관련 기관의 아카이빙의 지평을 확장하는 시도로서의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김선미, 송정숙 (2020). 기록으로 본 조선시대 울산의 로컬리티: 울산항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0(1), 1-25.
<https://doi.org/10.14404/JKSARM.2020.20.1.001>
- 문재원 (2016). 로컬리티 개념을 둘러싼 고민들. 로컬리티 인문학, (15), 305-314.
- 설문원 (2012). 로컬리티 기록화를 위한 참여형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32), 3-44. <http://doi.org/10.20923/kjas.2012.32.003>
- 한국국제교류재단(발행년불명). KCCNA(북미 한국학 컬렉션 컨소시엄). 출처: <https://www.kf.or.kr/kfEng/cm/cntnts/cntntsView.do?mi=2234&cntntsId=1683>.
- 한국기록학회(2008). 기록학 용어 사전. 서울: 한국기록관리학회.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n.d). Selection & reconsideration policy toolkit for public, school, & academic libraries. Available: <https://www.ala.org/tools/challengesupport/selectionpolicytoolkit>.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n.d). Libraries transforming communities: Engagement. Available: <https://www.ala.org/tools/librariestransform/libraries-transforming-communities>.
- Center for Korean Studies, University of Hawai'i at Mānoa (2023). CKS Faculty. Available: <https://manoa.hawaii.edu/koreanstudies/people/cks-faculty/>.
- Cox, R. J. (1996). Documenting localities: a practical model for American archivists and manuscript curators. Chicago: Society of American Archivists.
- Korean American Historical Society. (2003). 1903 - 2003: A century of Korean immigration. Available: <https://www.kahs.org/news/1903-2003-a-century-of-korean-immigration/>.
-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Libraries(n.d). Korean War Veterans Association (KWVA) Hawaii Chapter #1 Collections. Available: <https://archivesspace.library.manoa.hawaii.edu/repositories/4/resources/536>.
-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 Libraries(n.d). Korean War Veterans Association Hawaii Chapter #1 Collection. eVols. Available: <https://hdl.handle.net/10524/76176>.
- University of Hawaii at Manoa(2024). Digital Library: Korean War Collection: Korean War Veterans Association Collection. UHM Library Digital Image Collections. Available: <https://digital.library.manoa.hawaii.edu/collections/show/78>.
- University of Hawai'i at Mānoa(2023). Korean War collections: Korean War Veterans Association Collection. UHM Library Digital Image Collections. Available: <https://digital.library.manoa.hawaii.edu/koreanwar>.
- University of Hawai'i at Mānoa (2024). Strategic plan. Available: <https://manoa.hawaii.edu/wp/wp-content/uploads/2020/12/manoa-2025-strategic-plan.pdf>.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Kim, Seonmi & Song, Jung-Sook.(2020). Record-Based Locality of Ulsan during the Joseon Dynasty: Focused on Ulsan Port, 20(1), 1-25. <https://doi.org/10.14404/JKSARM.2020.20.1.001>
- Korea Foundation(n.d). KCCNA(Korean Collections Consortium of North America). Available: <https://www.kf.or.kr/kfEng/cm/cntnts/cntntsView.do?mi=2234&cntntsId=1683>.
- Korean Society of Archival Studies (2008). Dictionary of records and archival terminology. Seoul: Korean Society

of Archival Studies.

Mun, Jae won (2016). The Considerations for the Concept of Locality. *The Journal of Localitology*,(15), 305-314.

Seol, Moon-won (2012). Building Participatory Digital Archives for Documenting Localitie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32), 3-44. <http://doi.org/10.20923/kjas.2012.32.003>